

광주시 친환경車 주말·공휴일 무상 대여

설 연휴기간부터 전기차·수소차 22대 공유서비스 추가

기초생활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대상

광주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부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22대를 공용차량 공유서비스에 추가 투입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는 주말과 공휴일에 공용차량을 사회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시작된 이후 1900여 명이 430대의 차량을 이용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 명절부터 연료비, 통행료 등 운행비용이 저렴한 친환경차량 22대를 추가로 활용하며, 공유차량은 기존 23대에서 총 45대로 확대된다.

이용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디자이너(3자녀 이상), 북한이탈주민가족 등이다.

운전은 만 26세 이상이며, 최근

12대 중과실 사고나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운전면허 소유자만 가능하다.

공유차량은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연휴인 경우에는 최대 5일까지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은 광주시에서 일괄 가입하므로 이용자는 유류비, 통행료 등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이용일 10일 전부터 4

일 전까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

해 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용자와 운전자 자격 확인을 거쳐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차량은 시청 주차장에서 수령해 같은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김준영 광주시 지자행장국장은 “최근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오염이 계속되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공용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지원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은행권 DSR 도입 후 위험

대출 비중 24%→11% ‘뚝’

새 가계부채 관리지표인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된 이후 은행권의 평균 DSR과 위험대출을 의미하는 고(高)DSR 비중 모두 시범운영 때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축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미아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향상시키기 위한 지표다.

지난해 상반기 시범운영됐다가 10월31일부터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됨에 따라 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의 가운데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DSR 70% 초과대출과 DSR 90% 초과대출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 비율은 시중·지방·특수은행별로 다른데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초과 대출이 신규대출의 15% 이내, 90%초과는 10% 이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DSR 적용대상인 신규 가계대출(17조9000억원)의 평균 DSR은 47%로 시범운영 때인 지난해 6월(72%)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70%초과 대출 비중은 10.9%, 90%초과는 8.2%로 각각 23.7%, 19.2%를 기록했던 6월 당시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은행별로는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 각각 78%, 74%로 집계됐다. 40%를 기록한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123%, 128%에 달했던 6월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고DSR의 경우 70%초과와 90%초

과 비중이 시중은행이 각각 7.5%, 5.4%였다. 지방은행은 각각 23.5%, 20.2%였으며 특수은행은 23.4%, 18.7%씩으로 집계돼 모두 고DSR 관리비율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는 신규 가계대출의 80%를 차지하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평균 DSR이 각각 38%, 32%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고DSR 비중 역시 주담대의 경우 70%초과가 4.2%, 90%초과가 1.9%였으며 신용대출은 70%초과가 4.6%, 90%초과는 3.2%로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주담대의 DSR이 낮은 이유는 심사기준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9·13대책 시행으로 다주택세대의 신규 주담대가 제한되면서 기준에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았던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취급된 영향”이라며 “신용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도가 낮고 원리금 산정시 10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주택 외의 부동산담보대출은 평균 DSR이 10%였으며 DSR 70% 초과와 90% 초과는 각각 40.2%, 31.0%로 나타났다. 주담대나 신용대출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시범운영 때보다는 크게 낮아져 DSR이 과도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별 DSR 관리비율 준수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오는 2019년 말까지 달성을 해야 하는 평균 DSR 관리목표의 이행 여부도 반기별로 점검키로 했다. 2금융권에 대해서도 올해 2분기 중에 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출 관리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에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홍종학 장관, 지역 中企·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이틀간 목포·영암·여수 방문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목포·영암·여수의 지역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기부의 올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개편방향과 스마트공장

보급 계획 등 핵심정책을 설명하였다.

우선 홍종학 장관은 목포자유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내 있는 점포에서 제로페이로 물품을 구입하였다.

결제를 마친 홍 장관은 “제로페이는 시장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가맹하고 사용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의 결제수단으로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 있어도 결제가 되니 아주 편리하고 목포자유시장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는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많은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점 결제 기능도 도입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을 연계하는 포인트 충전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다음으로 목포에 소재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인 청해에스엔에프(대표 정길환, 조미경

제조기업)를 방문하였다.

청해에스엔에프는 대기업이 직접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 중에 있으며 HACCP 증정 요소 관리를 위해 제조실행시스템*(MES)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에 있다.

이어, 홍종학 장관은 영암 대불산 업단지에서 목포·영암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홍종학 장관은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재정지원과 필요한 제도개선 등 노력을 약속”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영암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지원을 하겠다”고 내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회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지역 산단의 정주연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다음으로 여수의 지역 중소기업인 청해에스엔에프(대표 정길환, 조미경

서은홍 기자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 자재 대금 150억 조기 집행

현대삼호중공업은 설 명절 지역 협력회사의 자금 지원을 위해 자재 대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재대금 조기 집행으로 혜택을 받는 협력회사는 200여개 회사, 금액은 150여 억원이다.

대금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남물된 자재로 원래 지급일보다 2주 가량 앞당겨 오는 31일 집행된

다.

또 현대삼호중공업은 회사 인근 사회복지시설 30개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등 생필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키로 했다.

회사 주요 임원과 부서장 등 주요 간부들은 별도로 조직한 후원회를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 12가구를 찾아가 위문금과 생활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다?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